

1

광개토대왕(廣開土大王) 비문

백제가 형제나라 야마토 왜로부터

도움을 받은 기록들

(1) 일본이 한국을 지배 했다는 물증으로 이용되는 비문

3세기 혹은 4세기에, 이미 일본땅에는 강력한 통일국가가 존재했었고, 한반도 남단에는 미마나(任那)라고 부르는 식민지가 있었을 뿐아니라, 백제와 신라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신화는, 일본서기에 나오는 종잡을수 없는 단편적이고 근거없는 공상적 기록들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얘기인것이다. 한국이나 중국 사서에는 그와 같은 가능성을 시사해 주는 기록이 하나도 없다. 한데 일본 사람들은, 드디어 1882년에 자기네들 주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줄수 있을 것 같이 보이는 물증이 발견 되었다고 믿고, 그것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 물증이란 것은 바로 고구려 광개토왕(재위, 391-413년) 비문 내용중의 한구절이다. 비문의 사본은 당시 일본군 참모부의 정보

장교였던 사카오(酒匂景信)가 일본으로 가지고 왔었다.¹ 문제의 구절은 바로 그 유명한 “신묘년(서기 391년)기록”이다. 일본사람들은 비석의 그 구절을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백제와 신라는 옛부터 고구려의 속민으로(舊是屬民), 조공을 해왔었다(由來朝貢). 한데 신묘년부터 [혹은, 신묘년에] 왜가 바다를 건너와(而倭以辛卯年來) 백제 . . . 신라를 쳐부시고(渡海破百殘 . . . 羅) 신민으로 만들었다(以爲臣民).”⁽¹⁾ 백제란 단어뒤에 라(羅)라는 글자에 이르기까지 세 글자가 보이지 않는다. 일본 사람들은 거의 예외없이 이것을 “××신라”, 혹은 “임나, 신라”라고 읽는다.

이시대를 연구하고 있는 거의 모든 일본 사학자들은, 그 비문에서 말하는 한국땅의 지배가, 바로 야마토 국가가 이미 4세기에 통일된 강력한 정권으로 존재 했었다는 것을 증명 한다고 주장한다. 신묘년 기록의 이와 같은 해석은, 이들 일본 사학자들이 고수하는 신조(信條)의 필수 불가결한 근거가 되고 있다.² 하타다(1979)는

¹광개토왕 혹은 호태왕(國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은 고국양왕의 아들로, 서기 391년(혹은 서기 392년)에 17세 나이로 왕위에 올랐다. 간혹은 그가 정한 년호를 사용해서, 영락태왕(永樂太王)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는 백제를 밀어내고 남진을해서, 고구려의 영토를 한반도 깊숙히 까지 확장 시켰다. 그의 뒤를 이은 장수왕은 서기 427년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겼다. 장수왕은 서기 414년에 그의 전 임자를 기리기 위해 기념비를 건립했다. 이 비석은 압록강 북쪽 길림성(吉林省) 통화특구, 집안(集安)의 한 언덕위에 서있다. 이 장소는 고구려의 수도 국내성(國內城)의 동쪽에 위치한 곳이다.

²하타다(1979)는 “참모본부가 광개토왕 비석에서 왜(倭)의 활동상을 발견 했을 때, 그들은 한국이 본래 일본 영토였다고 믿었다. . . 대륙 침공을 계획하고 있던 일본육군은, 이 비문 구절에서 당시 그들이 품고 있었던 야심을 역사적으로 합리화 시킬수 있는 강력한 자료를 발견했던 것이다”라고 말한다. 에가미(1967)는 일본 열도가 기마민족에게 정복 당한것이 4세기 중의 어느 한 시기 였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일본사람들이 하고 있는 광개토왕 비문해석 뿐만 아니라, 고대 일본역사에 대한 그밖의 어떠한 전통적 이론들도 타당성을 상실케 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본 사학자 중에서 에가미의 이론을 일부만이라도 수용하려는 사람의 수가 아주 적은 것이다.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전쟁전의 일본역사 교과서들은,
일본서기의 기록들에 근거해서
일본이 고대 한국을 지배 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후의 교과서들은
일본이 한국을 지배 했었다는 주장은 계속 하지만,
그 근거를 일본서기의 기록에 두지않고,
광개토왕 비문을 근거로 삼게 되었다.
바꾸어 말하면, 일본이 한국을 지배 했었다는 시각의 근거가,
믿기힘든 옛날 역사책의 기록으로 부터,
믿을수 있는 비문으로 바뀌어 졌다는 것이다.
항복후에 쓰여진 역사 교과서들은
전쟁전의 것들과는 아주 그 내용이 다르지만,
이 일본의 한국지배라는 점에 대해서 만은
전혀 변화가 없었고,
그 주장의 근거가 바로 광개토왕비인 것이다.”

(2) 비문의 해석

이제 우리는 광개토왕 비문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아야만 할것이다. 도대체 세상 어느 역사기록을 보더라도 백제와 신라가 옛부터 고구려의 속민 이었다거나, 계속 조공을 해왔다는 것을 입증 할만한 내용을 발견 할수가 없다. 오히려 삼국사기(이병도 역 주, 하: 217-218)는, 광개토왕이 나타나기 이전에는, 고구려가 백제에 의해 허다하게 침략 당했었다는 기록을 하고 있다. 서기 369년, 백제의 근초고왕(近肖古王, 재위 346-375년)은 태자에게 고구려를 침공하게 했고, 태자는 5천여명의 고구려 병사를 사로 잡았다. 서기 371년에는 근초고왕이 공격해오는 고구려군을 격퇴 시켰다. 그해 겨울, 근초고왕은 태자와 함께 고구려를 침략해서 평양

을 공격했다. 고구려의 고국원왕(재위 331-371년)은 전투중에 화살에 맞아 죽었다. 서기 377년 근구수왕(近仇首王, 재위 375-384년)은 3천명의 장병을 이끌고 고구려를 공격했다.²⁾ 사실 백제는 광개토왕의 침공이 있기전의 4세기 동안에는, 그 국력이 절정에 달해 있었던 것이다. 광개토왕은 서기 396년 백제 군사를 궤멸 시켰지만, 백제나 신라를 그의 속민으로 만들수는 없었다.³⁾

어쨌든간에, 당시 고구려는 신라와 싸운적이 없다. 그당시 고구려는 실제로 신라편을 들어, 신라가 백제와 왜에 대항해서 싸우는 것을 도와 주었다. 신묘년 기록 바로 다음 구절은, “그래서 병신년(서기 396년)에 (광개토)왕 자신이 수군(水軍)을 이끌고 백제를 토벌했다”라고 말하고 있다. (서기 396년에 백제를 상대로 싸웠든) 광개토왕의 전투에 대한 장문의 기록은, 58개의 백제성들, 천필의 세포(細布), 열명의 백제대신과 왕의 동생을 포함하는 천명의 포로, (몇년도 안돼서 깨졌지만) 백제가 고구려를 섬기겠다는 서약 등을 획득 했노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비문은 백제가 정복되었다는 기록을 전혀 안하고 있는 것이다⁴⁾ 반면, 일본서기와 광개토왕 비문은, 왜군들이 백제가 신라와 고구려에 대항해서 싸우는 전투에 적지않게 참가 했었다는 기록을 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들과 신묘년 다음에 나오는 기록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신묘년(서기 391년)기록의 백제라는 두글자와 끝에 라(羅)라는 한글자 사이의 공백을 메꾸는 가장 논리적인 방법은, 임나·가라(任那, 加羅)로 읽는 방법인것 같다. 사실 왕건군(1984)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백제 다음에 보이지 않는 세글자를 “× × 신라” 혹은 “임나, 신라”로 읽어버리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같다. 우선 신묘년 기록이란, 서기 396년에 광개토왕의 (신라가 아니라) 백

³⁾히라노(1977)는 “고구려가 서기 396년에 백제를 멸망 시켰다는 말은 과장이다. 왜냐하면 당시 백제수도 한성은 무사 했었고, 서기 475년에 와서야 한성이 함락되고 수도가 웅진(熊津)으로 옮겨졌던 것이다”라고 말한다. 삼국사기는 이미 서기 398년과 399년에 백제 아신왕(阿莘王, 재위 392-405년)이 고구려에 대한 대규모 침공을 계획 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제에 대한 침공을 정당화 시키기 위해 써넣은 것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할수 없을 것이다. 그뒤에 계속되는 기록은 명백하게 고구려와 신라가 친선관계를 유지했고, 고구려가 신라를 침공한 적이 없을 뿐아니라, 오히려 신라를 도와 왜군을 격퇴 시켰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서기 396년에 수행된 공격에 대한 공식적인 구실 속에 신라를 끼어넣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사실 뒤에 나오는 서기 400년 기록에는, 광개토왕이 왜군을 임나·가라(任那·加羅)까지 추격해서 섬멸 시킴으로서 신라를 구원 했다고 특별히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라”라기 보다는 “임나·가라”로 읽는 것이, 당시 고구려가 신라와 싸우지 않았다는 사실과 일관성이 있게 되는 것이다.

송서(宋書)에 의하면 왜왕은 자신을 사지절 도독 왜, 백제, 신라, 임나, 진한, 모한, 육국제군사 안동대장군 왜국왕(使持節 都督 倭百濟新羅任那秦韓慕韓六國諸軍事安東大將軍倭國王)이라고 자칭하면서, 서기 426년에 송 조정에게 이 칭호를 공식적으로 인정 해줄것을 요청 했다. 서기 451년에 송 조정은 두가지 수정을 한다음 그 칭호를 인정해 주었다. 즉 대장군이 장군으로 되었고, 6개국명칭에서 백제 대신 가라를 포함시켜, “왜, 신라, 임나(任那), 가라(加羅), 진한, 모한 육국제군사”로 만들어 주었다. 서기 478년에 왜왕은 “사지절 도독 왜, 백제, 신라, 임나, 가라, 진한, 모한 철국제군사 안동대장군” 칭호를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해서, 이번에는 대장군 칭호를 얻었으나, 여전히 그가 열거한 국가 명단에 백제를 포함시키는 것을 허락받지 못했다.^③ 아무튼 우리는 광개토왕 비문 속에서 “임나·가라”라는 표현을 발견할수 있고, 또 중국왕조 정사에서 “임나·가라”라는 표현을 발견할수 있는 것이다.^④ (일본서기 NII: 43, 44, 참조.)^⑤ 여기서 진한과 마한이란, 옛 진한, 마한 성읍국가 중에, 가야연맹의 구성원으로 살아남은 나라들을 지칭한 것이라고 상정 하는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왜가 백제, 임나, 가라를 정복하고 왜의 신민으로 만들었다”는 비문의 구절은, 백제가 왜군에 의지하는 것을 멸시하는 고구려 사

람들의 감정을 반영 하는것 같다. 즉, 고구려는 백제가 자주 왜군에 의지하는 꼴을 보고 화가나서, 멸시의 표현으로, 비문에다 백제가 임나·가라와 함께 왜에게 정복되어 그 신민이 되었다고 새겨 넣기로 결정을 했을수 있는 것이다. 4세기 말엽이후 부터는 백제, 임나, 가라, 야마토 왜 사이에 강력한 연합이 형성되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광개토왕 비문의 기록은 “고구려, 신라” 연합과 “백제, 임나, 가라, 야마토 왜” 연합 사이의 충돌을 얘기하는 것이다.

(3) 백제가 왜군을 사용했던 사례들

사실 일본서기에 의하면, 백제가 국내 전쟁에 왜군을 데려다 사용한 사례는 6세기 까지도 계속 되었다. 일본서기는 백제 성명왕(聖明王)이 서기 544년에 말한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성명왕은 킨메이(欽明)에게(NII: 51) “임나를 재건 하는데 사용할 군사를 청하고자 했다(夫建任那之國 . . . 請將士).” 성명왕은 신라와 안라 사이의 경계를 따라 여섯개의 성채를 축조하려 하는데(NII: 57), “각 성마다 5백명을 충원하기 위해 3천명의 병사를(三千兵士每城充以五百)” 킨메이에게 청하면서, 이들 병사들의 피복과 급식은 백제쪽에서 제공하고(吾給衣糧), 또 자신의 군사도 함께 배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并我兵士). 일본서기(NII: 62)는 백제가 서기 547년 왜에 사신을 보내 군사를 보내 달라고 청했고(乞救軍), 서기 548년에는 “370명이 백제에 파견되어 득이신(得爾辛)에 축성을 하는것을 도왔다(助築城)”고 기록하고 있다.

일본서기(NII: 69)는 성명왕이 서기 553년 킨메이에게, 신라와 고구려 사이에 오고간 것으로 알려진 다음과 같은 말을 알려주는 전언을 기록하고 있다: “백제와 임나는 자주 일본에 사람을 보내는데, 이것은 틀림없이 군병을 얻어(乞軍兵) 우리들 나라를 침략하려는 의도인것 같다. . . . 일본군병이 출발 하기전에 안라(安羅)를 취하고 . . .” 일본서기(NII: 68)는 또 “우찌노오미(內臣)가 양마(良馬) 두필, 배두척, 활50개, 화살 50목음과, 천황이 전하는, ‘우리에게 청한 군사는 바라는 바 대로 보내주겠다(所請軍者 隨王所須)’

라는 전언을 가지고 백제에 파견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일본서기(NII: 70)는 서기 553년 성명왕이 킨메이에게 보낸 또다른 전언을 기록한다: “바다 건너 이쪽 나라들은 말과 활이 심히 부족하오. 옛날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천황으로 부터 말과 활을 받아서 강적들을 막아 낸것ियो. 원컨데 우리에게 많은 량의 궁마(弓馬)를 보내주세요.” 일본서기(NII: 71-72)는 또 서기 554년조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백제는 목협문차를 . . . 큐우슈우에 보내, 우찌노오미에게 . . . ‘당신이 천황의 명을 받아, 우리에게 보내 주기로 한 군사를 데리고 왔다는(看送賜軍) 소식을 방금 들었소 . . . 금년의 전투는 요전보다 더욱 위험할것 같소. 우리에게 준 그 군사들은(賜軍) 정월이 지나기 전에 보내주세요.’ 이말을 듣고 우찌노오미는 . . . ‘곧 명해서 조군 천명, 말 백필, 선박 40척을 보내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答報曰, 卽令遣助軍一千, 馬一百匹, 船四十隻).”

(4) 다른 방법에서의 비문해석

물론 일본사람들이 해오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신묘년 기록을 해석 할수도 있다. 조승복(1984)은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백제와 신라는 옛부터 [광개토왕의] 속민이었다. 그때부터 그들은 조공을 바쳐왔다. 한데 왜가 신묘년에 왔다(而倭以辛卯年來). 그래서 [광개토왕이] 바다를 건너가 백제 × × 신라를 쳐서 신민으로 만들었다(渡海破百殘 × × × 羅以爲臣民).”

이기백(1984: 46)에 의하면 “백제는 . . . 백제지역으로 부터 이주해 간 사람들이 세운, 큐우슈우의 왜(倭) 소국들로 부터 군대를 끌어 들어 신라를 공격했으며, 이때문에 신라는 고구려에 지원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사람들이 신묘년에 건너왔다는 기록은 이해하기 그리 힘든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조승복(1984)에 의하면 비문에서 얘기하는 “바다”란 “한국의 서해안을 따라 위치한 황해(黃海)를 의미한다. 왜냐하면, 이 황해야말로 한국의 북서해안에서 한반도의 남, 혹은 남서지방으로 가는 가장 편리한 해

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다를 건너 . . . 를 쳐부셨다”는 기록도 쉽게 이해할수 있다는 것이다.⁴ 히라노(1977)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 비문은 광개토왕의 군사적 업적을 칭송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기록들이 과장되기 쉽다. 따라서 조심성 있는 본문 비판이 요청된다. . . . 백제가 고구려의 속국이 되었었다는 증거가 없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광개토왕이 나타나기 이전에는 백제가 고구려를 자주 공격 했었다. . . . 더구나 야마토국은 백제를 복속시킬 위치에 있지 못했다. 양국 사이의 관계는, 자주 기록에 나타나는 표현 그대로, 동등한 관계로 보는 것이 무리가 없다. . . . 백제는 고구려를 대적하기 위해, 야마토-가라[가야]연합에 의존했고, 따라서 가라[伽耶]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다.”⁵

사실 광개토왕비(왕건군, 1985: 305)는 백제와 왜와의 관계를 우호적 유대 관계로 묘사했다(百殘違誓與倭和通).

가야연맹 국가들은 신라에 정복 될때까지 백제와 왜의 동맹국들이었다. 또 백제사람들이, 일본서기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야마

⁴북한의 박시형(朴時亨)은 신묘년 기록을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백제와 신라는 고구려의 속민 이었고, 조공을 바쳤다. 왜가 신묘년에 건너왔다. 고구려가 [황해] 바다를 건너 그들을 쳐부셨다. 백제 × × × 라는 이리하여 [고구려의] 신민이 되었다.” 김정학(金廷鶴, 1981: 120) 참조.

⁵히라노(1977)는 계속한다: “그러므로 백제가 . . . 왜와 연합관계를 맺은것이 분명하다. . . . 이런 이유때문에 광개토왕 비문은 고구려가 [서기 400년에] 신라를 구원 했다고 말하고 있다. . . . 그리고 왜와 백제 사이의 충돌기사는 전혀 없이, 왜의 신라 침공만을 거론하고 있다. 왜군이 떼를 지어 나타났다는 신라 국경지방은 가라와의 국경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고구려가 왜군을 미마나 [임나] 가라 까지 추격했기 때문이다(追至任那加羅).”

토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고구려·신라와의 분쟁에 야마토 왜로 부터의 군사적 지원을 구하게 되었던 것이다.⁶ 약간 다른 시각에서, 레드야드(1975)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백제의 부여 사람들은 . . .
390년대에 들어와서 북쪽의 고구려 사촌들로 부터
계속적으로 심한 공격을 받게 되어,
390년대와 400년대에 아주 곤경에 빠지게 되었다.
일본의 형제들로 부터의 구원이,
그들을 구해준 유일한 활로 있었을지도 모른다 ——
아무튼 나는 광개토왕비에서,
왜가 바다를 건너와 한국에서 싸웠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일본서기(NII: 44) 또한, 백제의 성명왕(재위 523-554년)이 “옛날 신라가 고구려에 구원을 청해 임나와 백제를 공격했으나, 오늘날까지 복속시킬수 없었다(攻擊任那與百濟 尙不隸之)”라고 한말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⁶⁾

⁶페어뱅크, 라이샤워와 크레이그(1973: 282-283)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4세기 중 고구려의 남쪽을 향한 팽창과, 같은 시기 백제의 융성은, 이 두왕국으로 하여금 한강주변 지역을 놓고 충돌하게 만들었다. 서기 369년, 침공하는 고구려군은 백제에 의해 격퇴되었고, 백제는 고구려를 공격해서 서기 371년에는 고구려왕을 살해 했다. . . . 첫번째 조우에서는 백제가 승리 했었다. 백제는 한국의 가장 비옥한 농경지를 차지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구도 많고 생활도 풍요했다. 하지만 오랜기간에 걸친 전쟁을 통해서 볼때, 백제는 고구려보다 잘조직되지 못했었고, 또 약했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야마토 마한지역에 있었던 수많은 부족단위들 사이의 옛부터 내려오는 분열성향과, 지배가문의 근본이 나라 밖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이, 백제의 응집성을 손상 시켰던 것 같다. 백제는 국가를 보전키 위해, 항상 신라나 일본과 연합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5) 삼국사기 초기 기록의 신빙성

삼국사기는 광개토왕이 고구려의 19대 왕이며, 고구려가 기원전 37년에 건국되어 서기 668년에 멸망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일본 서기의 한구절은 (NII: 289-290), 삼국사기 기록의 정확성을 보여준다: “고구려의 중모왕[仲牟王, 朱蒙, 광개토왕비에는 鄒牟]이 그 왕국을 처음 세웠을 때, 그는 천년을 다스리고 싶었다(欲治千歲也) 그의 모친이 말하기를 — ‘네가 나라를 잘다스리면, 네 소원이 달성 될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너의 나라는 700년 밖에 가지않을 것이다.’ — 지금 [서기 668년] 이 왕국의 멸망은 바로 700년의 끝이 되는 것이다(當在七百年之末也).”⁶⁾ 이제 우리는 광개토왕이 고구려의 19대 왕이라고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게 말하는 광개토왕 비문을 읽어보고 놀라 자빠질 지경이다.⁷⁾ 이 비문의 발견으로, 한국역사의 초기 기록을 불신하려는 일본 사람들의 기도를 좌절 시킬수 있고, 또 역사가들은 이제 삼국사기 기록으로 다시 돌아갈수 있게 되었다.

위서(魏書, CCI: 505, 508)에 의하면 백제 개로왕이 서기 472년 북위 조정에 서한을 보내, “백제는 고구려와 함께 본래 부여로 부터 나왔다(與高句麗源出夫餘)”고 말했다 한다.^{3, 6, 23)} 삼국사기(이병도 역주, 상: 260, 하: 15)는 백제시조 온조왕(溫祚王)이 하백의 딸의(河伯之女) 아들이며, 고구려의 시조인, 주몽(朱蒙, 鄒牟)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속일본기 간무8년조(續日本紀卷四十延歷八年條)에는, 고오닌(재위 770-781년)의 왕비 였으며 백제 무녕왕의 손인, 간무(桓武)의 모친 타카노(高野新笠, 서기 ?-789년)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녀는 백제 시조의 부친이며(百濟遠祖都慕王) 하백의 딸의 아들인, 도모왕의 후손이라고 기록했다.⁸⁾

⁷⁾광개토왕비는 그가 3대 대주류왕(大朱留王, 大解朱留王, 大武神王)으로 부터 세어 서, 고구려의 17대왕이라고(至十七世孫)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주몽(朱蒙, 鄒牟)으로부터 세면 19대 왕이 되는 것이다. 왕건군(1985: 298) 참조.

⁸⁾속일본기는 고오닌(光仁)의 명에 의해 편찬되기 시작 했으며, 서기 697년부터 서

속일본기의 다음해 기록은(九年條)는 백제 귀수왕(貴須王, 近仇首王)이 태조 도모대왕(太祖都慕大王)으로 부터 세어서 16대 왕이 된다고 말한다. (김정학, 1981: 6-7 참조.) 여기서 도모대왕이란 분명히 온조왕의 부친인 주몽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것은, 삼국사기가 근구수왕을 온조로 부터 세어서 백제의 14대왕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마도 김부식이, 재위 기간이 아주 짧았던 왕 한명을 빼어 버렸던것 같다.) 뿐만아니라 신찬성씨록(佐伯有清, 1962: 286)은 문주왕(文周王, 汶洲王, 汶淵王)이 도모왕으로 부터 세어서 백제 24대 왕이 된다고 기록하고 있는데(百濟公 出自百濟國都慕王二十四世孫汶淵王也), 삼국사기는 문주왕을 백제 22대 왕으로 기록하고 있다. 신찬성씨록은 혜왕(惠王)이 도모왕으로부터 세어서 백제의 30대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百濟朝臣 出自百濟國都慕王三十世孫惠王也), 삼국사기는 혜왕을 백제의 28대 왕으로 기록하고 있다.

신찬성씨록(전계서: 304)은 백제 7대 사반왕(서기 234년)을 조상으로하는(半毗氏 百濟國沙半王之後也) 씨족을 기록하고 있다. 신찬성씨록(전계서: 30)은 또 비류왕(比流王, 백제 1대왕, 재위 304-344년)을 조상으로 하는 세개의(春野連, 面氏, 汶斯氏) 씨족을 기록하면서, 비류왕이 초고왕(백제 5대 왕, 재위 166-214년)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다(出自百濟速古王孫比流王也). 동시에 신찬성씨록(전계서: 287)은 백제의 13대 왕 근초고(近肖古王, 재위 346-375년)의 후손을 조상으로 하는(石野連) 씨족도(出自百濟國人近速王孫憶賴福留也) 기록하고 있다. 이것을 보면 신찬성씨록은, 삼국사기가

기 791년까지의 9대에 걸친 기록이다. 이것은 고오년의 아들 간무(재위 781-806년)의 재위 기간중인 서기 797년에 완성 되었으며, 스가노 마미찌(菅野津連)眞道, 서기 741-814년)에 의해 천황에게 제출되었다. 편찬 책임자는 후지와라 쓰구타다(藤原繼繩, 서기 727-796년)였었는데, 완성되기 수개월 전에 죽었다. 사카모토(1991: xii)는 속일본기가 조정의 조서들을 고전 한문으로 기록하지 않고, 본래의 일본식인 선명체(선묘오타이, 宣命體)로 기록했기 때문에 아주 귀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서기 166-214년 사이에, 또 서기 234년에 각각 왕위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백제왕들(초고왕과 사반왕)을 조상으로 하는 야마토 지배씨족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신찬성씨록은 11대 비류왕이 (5대) 초고왕의 후손이라고 기록하므로서, (백제 13대) 근초고왕과 (5대) 초고왕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부터, 한국의 역사책에 나오는 초기 고구려왕실 계통에 대한 기록뿐만 아니라, 백제와 신라의 왕위 계보도 설화로 취급하지 말고 역사로 취급해야만 할 것이다. 스제스니악(1951)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국사서를 연구하는 사학자에게는, 광개토왕 비문이 그들 사서(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정확성과 권위를 증명하는 또 하나의 물증이 된다. 일본의 가장 오래된 사서들은. . . 정말로 1급의 과학적 자료들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일본국가의 발전과 정부에 대한 핵심적 문제에 관해, 수많은 의도적 왜곡과 삭제를 하고 있다. 가장 비판적으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역사학자들도 . . . 단순히 일본서기나 고사기에만 의존하게 되면, 4세기 말과 5세기초의 한국-일본 전쟁들에 대해 명확한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따라서 역사적인 사실도 재구성 할수 없게 될 것이다.”